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익산시, 환경기초시설에 보급…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현키로

익산시가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기초시설을 친환경시설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선정돼 국비 8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국비 포함 17억원을 투입해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74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2023년부터 운영한다.

시설 운영이 본격화되면 연간 934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요금 9500만원 절감, 온실가스배출량 434.6t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추진전략의 하나다. 환경기초시설 주차장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환경기초시설이 친환경시설로 거듭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 민원 해소 촉구

군산시의회 민원대책특별위원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앞 단식투쟁 돌입

군산시의회 민원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앞에서 군장산단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소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군산시의회 민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가 지난 6일부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앞에서 군장산단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소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특위는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가 군장산단인입 철도공사로 인해 장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피해지역을 방문해 인입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파손, 안전사고 위험, 배수로 불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등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복구를 요청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준공 전 피해복구를 이행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은"국가철도공단 측은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피해시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민원해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위원장은"군장산단인입 철도공사로 인해 물류수송체계 구축과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사항은 없어야 한다"며"주민 피해복구를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단식투쟁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2022년 주요업무·본예산 편성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본예산 편성 보고회를 갖고 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임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오프라인과 ZOOM 화상회의를 병행하고, 대면회의를 최소화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 중 쟁점 사항에 대한 세부 토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문화도시조성, 선교역사관 건립사업, 군산전북대병원건립, 새들 허브숲 조성사업,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센터 운영 등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더불어 친환경선박 대체연료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활성화사업,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등 미래기술 핵심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군산형 일자리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향후 추진 방안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토론회를 함께 실시해 주요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의회 예산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사전절차 미이행 및 불필요한 예산 등을 과감하게 걸러내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다.

또한 민선7기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적극 검토됐다.

/군산=한경봉 기자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과 성품을 기부한 김득추(74)씨의 소식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웃에 건네는 따뜻한 온기와 감동'

군산 김득추 어르신 군산사랑상품권·성금 기부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과 성품을 기부한 김득추(74)씨의 소식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군산시는 김득추 어르신이 군산사랑상품권 120만원, 성금 101,000원(총 1,301,000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평소 기탁자가 해망동 어판장에서 삼발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생선 배달, 어상자 정리, 폐지 줍기 등으로 한푼 두푼 힘들게 모은 돈을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탁식에 참석한 어르신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본인의 온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세대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군산시도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탁된 성금·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산시 옥도면 도서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

군산시는 202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박람회 준비점검 및 세부실행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박람회 개최를 위해 청년뜰에서 황철호 부시장 주재로 202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박람회 준비점검 및 세부실행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1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오는 11월 19일부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최초로 3일간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새롭게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전북 2,0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이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체험 부스, 정책홍보관 등이 운영되며 다양한 학술행사와 영화상영 등이 펼쳐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기획전, 라이브쇼핑 등 온라인 프로그램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황 부시장은 "박람회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각 동선별로 방역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사도 동시에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보다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조직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회는 수립된 박람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시?판매 부스 구축 및 프로그램 일정별 세부실행계획, 홍보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해 보고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주관하게 된다.

/군산=고병만기자

지역 소식통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요건 충족 시 자가 격리 면제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등 방역상황 변화를 반영해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 격리면제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또 시민모두가 다함께 손씻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증상 있을 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행복건강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 시에 한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라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만 한다.

/군산=고병만기자

메타버스 전문인력양성 과정 직업훈련생 모집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실직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전문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meta)과 현실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이지만 마치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구현하는 증가상현실세계를 뜻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게임산업 외에도 자동차업계, 공연과 대중문화, 교육, 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감형 콘텐츠(Metaverse)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과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추세이다.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과 예비창업자, 특고·프리랜서 및 일반구직자를 대상으로 금번 교육을 통해 4차산업에 발맞추어 성장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입주기업과 관련산업의 시너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메타버스 전문인력양성과정 훈련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9일까지로 훈련생 15명을 모집 중이다.

/군산=한경봉기자